

 **구제역 매몰 399만9천두...완료 눈앞**

**+ HPAI는 250개 농장 547만5천여수 모두 살처분**

2일 08시 현재,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200건 중 149건이 양성으로 판정났다.


매몰살처분 대상은 6천68농장, 340만2천304두이며, 이중 6천48농장, 339만9천417두(99.9%)가 매몰완료됐다. 축종별 살처분 대상은 소 15만812두, 돼지 324만1천706두, 염소 6천715두, 사슴 3천71두 등이다.

소 2차 예방백신 접종대상은 19만1천291농장, 353만8천756두이다. 이중 18만9천774농장, 349만3천827두(98.7%)가 접종을 끝냈다.

돼지 2차 백신 접종대상은 820만653두이고, 685만1천193두(83.5%)가 접종을 했다.

한편, 고병원성 A는 22일 08시 현재, 89건이 신고됐고, 이중 44건이 양성판정 받았다. 지난 17일 신고된 경기 이천시 종계농장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매몰살처분 대상은 250농장, 547만5천826수이며, 매몰살처분을 모두 끝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2월23일

 **“안동 구제역, 베트남과 연관”**

**+ 검역원, 브리핑 갖고 “역학관계 가장 높다” 재차 강조**

강화 바이러스 재발 가능성 일축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난해 베트남 바이러스와 관련성이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7일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제 표준연구소(퍼브라이트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안동지역 구제역 바이러스와 지난해의 베트남 유래 바이러스와 유전적 관련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유전자 염기서열만 다른, 98% 이상 일치했다고 밝혔다.

주이석 검역원 질병방역부장(사진)은 “95% 이상만 되면, 같은 계통 바이러스라고 봐도 무방하다. 역학관계로 볼 때 베트남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국내에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장은 또 “일본, 러시아, 홍콩 등의 바이러스가 베트남보다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적 일치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와 역학관계가 전혀 없어 유입국가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강화 바이러스의 재발 논란을 두고서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5개월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이는 혈청학적 검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2월21일



## 전문가들 “험난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치”

### + 우리 축산업,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의 길은

접종축 모두 살처분 · 백신 지속시 2년간 발생 없어야 자격  
이미 전국단위 백신 실시...바이러스 비존재 입증도 어려워

구제역 청정국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지만, 그래도 청정국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하게 하면, 마지막 접종 후 6개월 동안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백신접종을 지속할 경우에는 2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하고, 최근 1년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살처분 정책을 고수했거나, 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백신접종 축을 모두 살처분했다면, 3개월만으로도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미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백신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상재화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또한 전국단위로 백신을 한 만큼, 백신접종 축 살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정국 지위 회복 자격을 얻으려면, 수년 이상 오랜 시간이 불가피해 졌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전국적인 검사조직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가시밭 길이 예상되고 있지만, 구제역 청정국은 범 축산업계가 힘을 모아 꼭 일구어야 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일각에서는 ‘청정국 지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방화 시대, 청정국은 축산물 수입을 막아내는 진입장벽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 또한 국제회의, 국제무역, 관광산업 등에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이미지를 심어준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2월16일



### 구제역 백신이 바이러스 유발?

일각 의구심에 전문가들 “절대 불가능”  
“접종 스트레스로 잠복증상 발현될 수도”

“멀쩡했던 돼지가 백신접종 다음날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났다.” 요즘 구제역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다.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을 통해서는 결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번에 쓰이고 있는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활화(사독) 백신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접종 스트레스에 의해 잠복해 있던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는 한다. 특히 백신에 들어있는 오일 부형제는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에 걸려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면역력에, 아픈 주사를 놔으니, 잠복기를 버티지 못하고 구제역 증상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사람으로 보면, 과로했더니 감기 걸렸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미 그 사람은 감기에 감염돼 있던 상태였다.

백신은 항체를 형성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항체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침투 양이 더 많으면, 질병에 감염될 수 밖에 없다. 백신접종에 맹신해서는 안된다.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2월16일



## “주사바늘 든 식육 유통 가능성 없다”

### ✦ 전문 수의사 · 금속탐색기 등 철저한 검사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시 빠지지 않는 주사바늘이 식육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식육 가공과정에서 금속탐색기 등으로 철저히 검사하기 때문에 주사바늘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구제역 ‘주사바늘 공포’ 라는 보도를 통해 육가공 및 식품업계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때 동물 체내에서 빠지지 않는 주사바늘로 인한 이물질 사고가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가축은 시·도 소속 검사관인 전문수의사와 도축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경우에만 그 고기를 유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육을 부위별로 분할·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탐색기 등을 활용해 이물질을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바늘이 남은 상태로 식육이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는 전국의 도축장에 상주하는 수의사 등에게 주사부위를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식육가공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에게도 금속탐색기를 가동해 주사바늘 잔류여부를 철저히 검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돼지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축할 수 있으며, 수의사가 모든 가축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도축검사원이 도축된 가축의 도체(내장·머리 등을 떼어낸 나머지) 및 내장에 질병의 징후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등의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도축이 금지되며, 염증부위 등 식용 불가한 부위와 도체내 주사바늘 등 이물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 제거함으로써 유해한 식육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식육가공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도 금속탐색기 등을 활용해 이물 함유여부를 검사하는 등 이중으로 주사바늘 잔류여부를 검색하고 있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3월4일



## 가축 매몰 침출수 '0%' 시스템 개발 실용화

### ➤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 나주 매몰현장 적용 사례 소개

구제역·AI 발생으로 인해 무작위 매몰 작업이 성행하면서 가축침출수가 붓물 터지듯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30일 안에 매몰 가축을 완벽하게 자연환원하는 기술이 개발돼 화제다.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대표 차상화)은 지난 1월 23일 나주시 소재 산란계 4만수 규모의 농장에서 AI예방 매몰 작업을 실시한 이후 2월 21일 현재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자연분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 소재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이 독자 시도한 매몰처리 작업은 임성훈 나주시장과 담당 공무원들도 직접 참여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농조합법인의 차상화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마이크로맥스 시스템과 기술은 가축분뇨나 왕겨를 호기성 호열균과 혼합해 매립지에 차수막을 치고 매몰 가축과 혼합한 뒤 원뿔형식으로 쌓아두는 것과 흙은 덮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또 호기성 호열균이 분해를 시작하면 중온에서 고온으로 전환되며 고열이 발생하고 매몰된 가축 사체가 분해되면서 수분이 증발하게 돼 부패 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마이크로맥스의 시스템은 또 이동이 불필요하며 단시간 내 각 현장에서 처리함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차 대표는 “마이크로맥스는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천연호기성 미생물군이며, 소화 분해 효소 및 분해효소를 분비하는 천연호기성미생물군”이라고 설명하고 “유기계 폐물이나 싼증성 생물이 일으키는 수질오염, 공기오염, 악취 등의 문제를 2차 오염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전화 010-5103-4988)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2월25



## 백신접종 향후 2~3년간 불가피

### ✦ 구제역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향후 2~3년간은 백신접종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수의정책포럼’에 참석해 “백신정책은 고도의 판단이었으며, 추가적인 구제역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2~3년간 구제역 백신접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백신정책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백신정책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로 영국을 비롯한 타 국가들도 백신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구제역 백신접종이 순환감염, 비용, 스트레스 유발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두 달간 2870만마리 분이 접종될 동안 축산농가에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며 “오히려 많은 농가들이 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매몰지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매몰지 4500여개에서 아직까지 보고된 침출수 문제는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오보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수의학계 전문가들은 방역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방역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행정위주의 개편이 아닌 방역, 검역 등 기술을 강화해 전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수의학계 전문가들은 살처분 전담요원 확보와 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제작 등을 유 장관에게 제안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3월7일